

Awana Leader

분당 가나안교회를 섬기는 김영남 교사

2007년 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와나 교사 컨퍼런스에서 우연찮게 풍선아트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인 어와나 클럽의 선생님들의 열정과 성령 충만한 모습에 감의하는 동안 저의 마음도 벅찼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꼭 만들어 주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나도 어와나 클럽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리라"는 생각이 간절해 졌고, 그 간절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베풀음을 깨닫고, 그 해부터 어와나클럽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큰딸 수인이는 7살이었고, 작은딸 정인이는 6살이어서 1년 뒤에 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어릴수록 어와나의 큰 비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T&T교사로, 수인이는 불티단으로, 정인이는 저와 함께 언니오빠들이 성경암송과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우리 세 모녀는 어와나 클럽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3년이 지난 지금, 제 아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던 제가, 어와나 클럽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감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살에 어와나클럽을 만난 수인이는 숨기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는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로 바뀌어서, 지금은 믿음생활도 열심히,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멋진 2학년이 되었습니다. 6살에 어와나를 만난 정인이는 울보였던 별명이 무색 하리 만치 활발하고 웃음 많은 아이로 바뀌어서 씩씩한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부족한 것들이 차츰 온전해 짐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인이, 정인이가 어와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어와나 안에서 행복해 하는 모습에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종된 마음으로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기도와 담의 결실임에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와나클럽의 모든 아이들이 어와나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성장하여 어와나 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감히 상상하며 미소지어봅니다.



Young-nam, Kim, Canaan church in Bundang

While I had been thankful for God's grace, I had a chance to give a balloon art lecture at Awana leaders conference in 2007. I was deeply moved to see the devoted lead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were eager to learn for the benefit of the kids. With the experience, I longed to belong to Awana Club, which I felt later was God's providence, and thereafter I became a member of Awana family in 2007.

At that time, my elder daughter, Su-in was 7 and the younger, Jeong-in 6 years old. At first I thought of joining Awana with my children the next year, but I changed my mind because I thought it better to give my children Awana vision as soon as possible. I started to serve as a T&T leader and Su-in joined Sparks, with Jeong-in just watching elders memorize the Words and play games.

Looking back those three years full of God's grace, all of us three have changed a lot. I came to pray for not only my children but also for other kids including Awana clubbers and other kids all over the world. Starting Awana in 7 years old, Su-in was very shy, but now she is a second grader, very active and positive both at church and school. Jeong-in used to be a crybaby when she first met Awana club three years ago. Now she is the first grader, active, lively and easy to laugh.

I feel when God touches, something that lacks has gradually been filled. Thank God.

I also thank God that Su-in and Jeong-in love Awana very much and feel happy, which I owe to the devoted leaders prayers and sweats.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Awana kids grow up as approved workmen who are not ashamed after finishing Awana courses and serve as Awana leaders.

